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공일자 | 2015.09.23(수)        | 담당자 | 오승연 연구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홍보담당 | 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 | 연락처 | 02-3775-9036, 010-2362-7537 총 4매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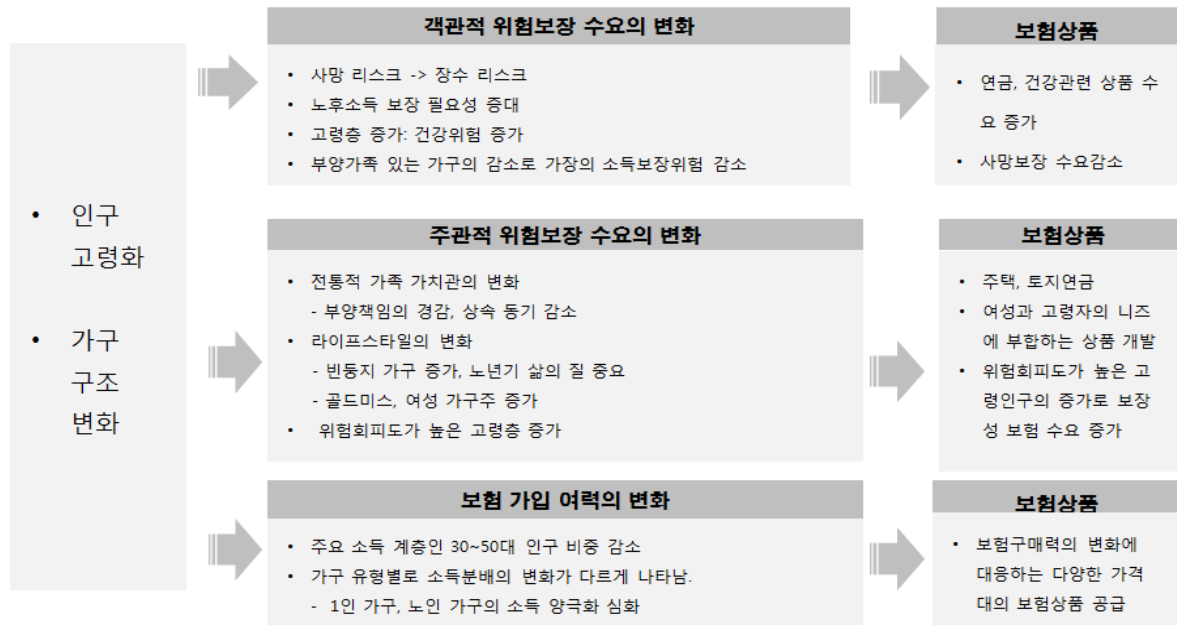
## 제목: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상품 개발 및 판매 전략이 필요 - 고령 부유층과 젊은 중산층으로 보험시장 양극화 -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 오승연 연구위원·김유미 연구원은 『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』이라는 보고서에서 “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로 납입보험료가 감소하고 있으며, 보험의 주요 가입층이 변화하고, 보험 소비시장이 양극화”되고 있음을 주장함.
- 2001~2012년 동안 가구의 연평균 납입보험료는 114만 6천 원 증가하였으나,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는 납입보험료를 각각 13만 4천 원, 12만 4천 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.
-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로 전체 보험가입 가구 중 55세 이상과 1인 및 부부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, 가구의 보험 구매력은 핵심 소비층(35~54세, 부부+자녀 가구)에서 약화된 반면, 고령층과 1인 및 부부 가구에서 개선되고 있음.
- 보험 소비계층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령층 가구와 보험가입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젊은 세대 및 중산층으로 양극화 되고 있어 두 시장에 서로 다른 상품 및 판매 전략이 필요함.

### 생존보장 중심으로 보험수요가 증가

- 가구의 객관적 위험보장 수요는 과거 사망보장에서 생존보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,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약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주관적 위험보장 수요가 변하고 있음.

<그림 1>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수요의 변화



- 보험 상품(저축성, 질병보장, 사망보장)에 따라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, 가구의 연령별·유형별로 보험 가입률 편차\*를 분석한 결과,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상품은 사망보장보험이며, 질병보장보험은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것으로 나타남.

\* 편차가 클수록 고령화나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, 가구주 연령별·가구 유형별 가입률 편차가 사망보장보험에서 가장 크고, 질병보장보험에서 가장 작게 나타남.

##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가구 평균 약 26만 원 납입보험료 감소

- 2001~2012년 동안 가구의 연평균 납입보험료는 114만 6천 원 증가 하였으나,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는 납입보험료를 각각 13만 4천 원, 12만 4천 원 감소시킴.

- 동 기간 동안 인구구조 변화는 34세 이하(10% 감소), 35~44세(3% 감소), 45~54세(5% 감소), 55~64세(3% 증가), 65세 이상(9% 증가)이었음.
- 동 기간 동안 가구구조 변화는 1인(10% 증가), 부부(6% 증가), 부부+자녀(10% 감소), 3세대 이상(5% 감소)이었음.

<표 1>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납입보험료 변화에 미친 영향

(단위: 만 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| 가구당 평균값 | 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구당 평균값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총 납입보험료<br>변화(①+②) | 114.6   | 200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5.6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2012년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0.2   |
| ① 구성효과             | 51.4    | 인구 고령화(가구주 연령)                 | -13.39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가구구조(1인, 부부, 부부+자녀, 한 부모, 3세대) | -12.4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경제변수(소득, 자산, 자가 소유, 맞벌이)       | 72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기타 특성(가구주 성별, 교육, 자영업 등)       | 5.18    |
| ② 구조효과             | 63.2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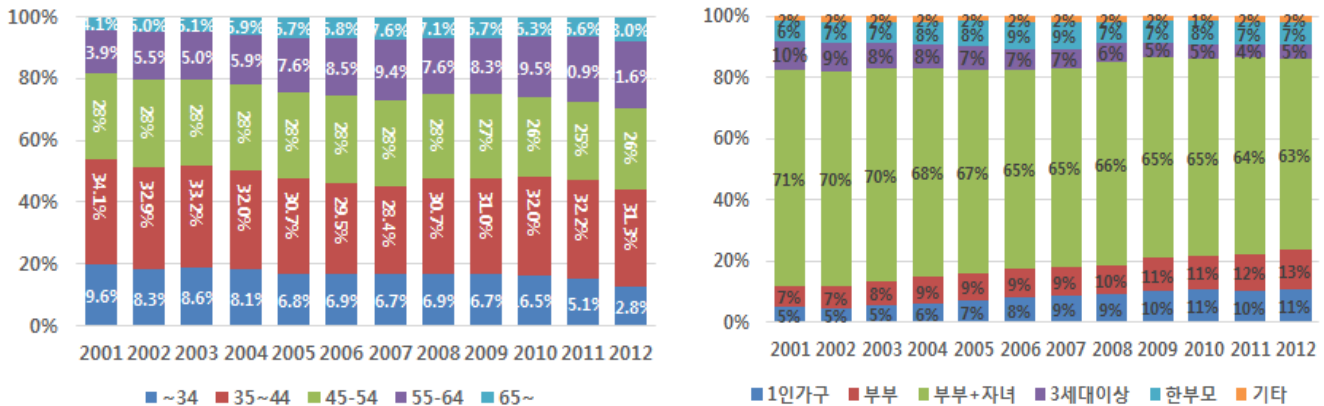
주: 구성효과는 2001~2012년 동안 변수 값의 변화로 인한 납입보험료의 변화이고, 구조효과는 변수 값 이외의 변화로 인한 납입보험료의 변화임. 납입보험료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.

자료: 『노동패널』, 각 연도.

## 고령층과 1인 및 부부 가구를 중심으로 보험가입이 가파르게 증가

- 보험가입 가구의 연령별·유형별 분포 변화는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.
- 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, 55세 이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, 55세 미만에서는 감소하였음.
  -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, 부부+자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였음.

<그림 2> 전체 보험가입 가구 중 연령별, 가구 유형별 비중 변화 추이(2001~2012년)



자료: 『노동패널』, 각 연도(4~15차).

## 고령 부유층과 젊은 중산층으로 보험 시장이 양극화

- 보험 소비계층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령층 가구와 보험가입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젊은 세대 및 중산층으로 양극화되고 있어 두 시장에 서로 다른 상품 및 판매 전략이 필요함.
  -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구 대상으로는 자산관리, 유산상속 등의 니즈를 포함하는 개인별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음.
  - 소비자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보험가입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젊은 세대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저가의 보험 상품(정기보험 및 제3보험) 공급을 활성화하고, 이를 위해 저가 채널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.

<별첨> 조사보고서 『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』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